

제 3 절 e-Book

유 선 실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570 - 4333, sunsil@kisdi.re.kr)

· 목 차 ·

1. 개 관	106
1.1 e-book의 정의	106
1.2 e-book의 특징	107
2. 세계시장 동향	109
2.1 시장현황 및 전망	109
2.2 업체동향	110
3. 국내시장 동향	116
3.1 시장현황	116
3.2 업체 동향 및 서비스 제공 현황	117
3.3 주요 업체 동향	119
4. 향후 전망	124
참고문헌	124

1.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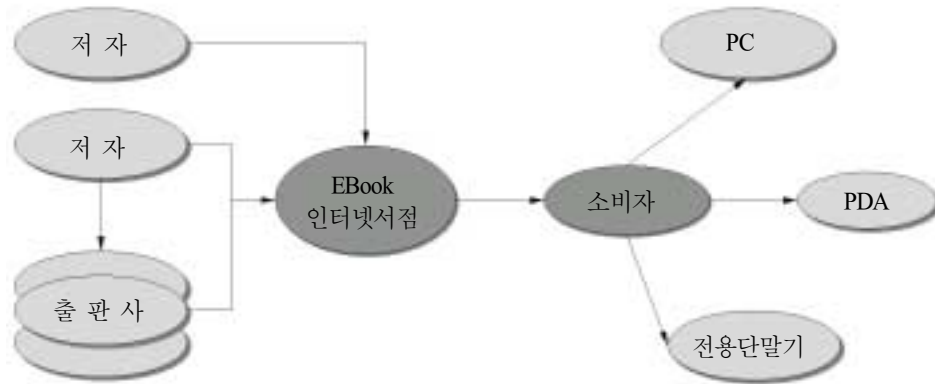
1.1 e-book의 정의

e-book은 책이라는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 또는 메시지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이다. e-book을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기존의 종이책 대신 XML 또는 PDF를 활용하여 만든 디지털화된 책을 PC나 전자책에 다운 받아 뷰어(viewer)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⁶⁴⁾.

64) 현재 e-book에 대한 정의 및 용어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콘텐츠, 솔루션, 하드웨어를 모두 포괄하여 e-boo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e-book 전용 단말기는 전자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e-book을 광의로 정의한다면, 오프라인 형태의 CD-ROM, 온라인 형태의 인터넷, 그리고 PC 통신상의 퍼블리싱을 포괄하는 모든 전자적 출판매체 (Electronic Publishing) 를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의 e-book은 전자출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며, PDA 등 Post-PC와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이다.

e-book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치사슬을 통해 나누어 보면 크게 e-book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 관리, 제공 등의 부문(콘텐츠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솔루션 부문, 그리고 콘텐츠의 디스플레이와 활용을 위한 단말기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29] e-Book의 유통체계

1.2 e-book의 특징

e-book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시킨 것은 2000년 3월 온라인 상에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출간된 스티븐 킹(Stephen King)의 66페이지 중편소설 『Riding the Bullet』이었다. 이 소설은 이틀만에 40만 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짐으로써 e-book 시장의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e-book은 종이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⁶⁵⁾.

1) 경비절감

e-book은 server에 원본 file이 보존되어 있고, 독자가 copy하여 download하는 것이므로 인쇄비, 원자재비, 재고관리와 물류비용 등 책의 출판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초판에서 2판의 발행과 같이 비슷한 내용의 중복이 많은 경우 모든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종이책은 불확실한 판매부수를 예측하여 미리

65) 박근수(2000) 수정 보완

인쇄하여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확률이 높지만 **e-book**은 재고부담이 없다. 한편 사용자의 경우에도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전자책 버전 **e-book**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단말기 구입비를 지출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2) 가용성

새로 출판된 책을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며, 절판된 책도 다시 볼 수 있다. 특정 책을 검색하는 것이 쉬우므로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서적이거나 교과서, 학습지, 백과사전, 실용서 등과 같이 개정이 빈번한 책의 경우에는 **e-book**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휴대가능성

전용단말기 버전의 **e-book**의 경우 여러 권의 책을 하나의 단말기에 담아서 휴대하여 볼 수 있다.

4) 기능성

PC나 전용단말기의 화면위에서 이용자가 메모를 하거나 밑줄 등을 긋고 다시 지우는 일들의 자유롭고, 책 내용의 검색이나 사전기능을 첨부시킬 수 있다. 검색기능은 전문서적이거나 학습지, 교과서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전자게시판이나 **email** 등 **network**를 이용하여 독자의 의견을 듣는 등 인터랙티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5) 다양성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를 첨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은 교육용 도서의 경우 교육효과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닌 세밀한 편집, 디자인의 종합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종이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book**은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가독성을 비교하였을 때 연속하여 읽는 경우 모니터 화면이 종이를 읽는 것보다 피로도가 심하며, 안정도에 있어서도 **e-book**은 한계가 있다. 또한 대량복제 및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보호에 따른 제반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e-book**은 인쇄비가 들지 않아 제작비가 종이책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물류비용 및 재고부담이 적다는 의미일 뿐 제작비는 종이책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제작비용이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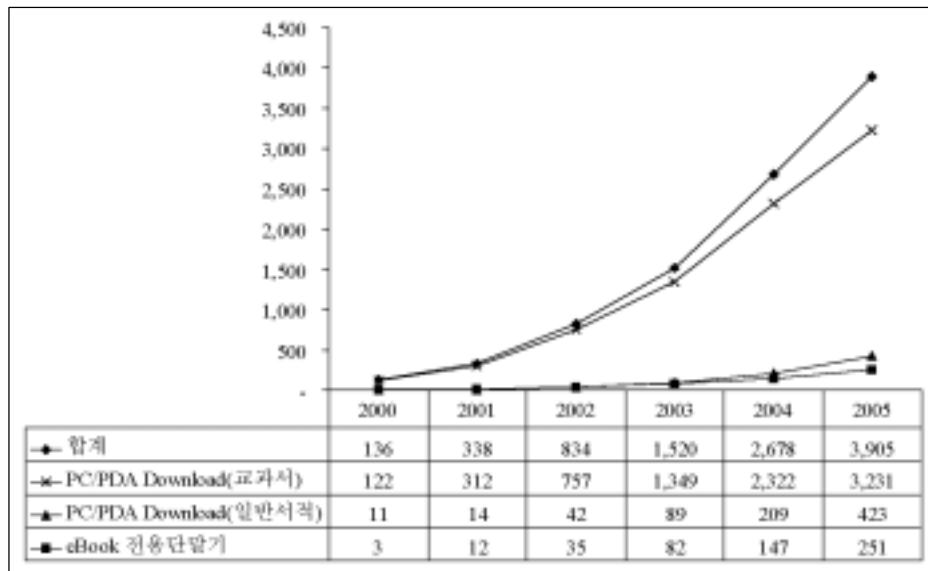
2. 세계시장 동향

2.1 시장현황 및 전망

e-book은 게임, 인터넷음악이나 인터넷영화 등과 같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중요한 부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무료 파일이 무수하게 많고 파일교환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인터넷음악이나, 낮은 대역폭으로 인한 잦은 끊김과 열악한 화면상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영화 등과 마찬가지로 e-book 역시 출발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 형성 지연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기존 종이책에 만족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굳이 모니터로 콘텐츠를 읽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e-book은 동영상과는 달리 온라인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현재의 기술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전달방식이 본래의 소비형태와는 전혀 다른 매체, 즉 리더나 전자책을 요구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많은 e-book 콘텐츠들이 PC버전으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e-book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단말기 보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종이책의 소비 행태와 유사하기 위해서는 PC 화면을 통해 읽는 것보다는 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위: 백만달러)



자료: Forrester Research(2000. 12)

[그림 3- 30] 세계 e-book 시장전망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는 단말기들은 종이책과 같은 편리함으로 주기에는 해상도나 폰트 등에서 부족함이 많다. 또한 CD나 DVD가 그랬듯이 새로운 매체는 항상 콘텐츠와 단말기간의 **Chicken & Egg Problem**을 동반하므로 단말기 보급확대와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출판사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e-book 시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e-book 시장은 수년내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출판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e-Book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5년에 약 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은 PC나 PDA로 다운로드되는 교과서로서 e-book 시장의 대부분인 약 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서적과 e-book 전용단말기는 단말기를 통해 책을 읽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능과 검색기능이 필요한 전문서적이거나, 한번 읽고 말 가벼운 소설류 등 종이책⁶⁶과 상호 보완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2005년에 약 4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 업체동향

e-book은 디지털화된 책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Contents Retailer와 e-book 출판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제공 업체, 그리고 e-book을 볼 수 있는 전용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의 동향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부문

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업체들이 e-book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e-book 돌풍' 혹은 '금속활자 발명이래 최대의 출판 혁명'이라는 표현 등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 최초의 e-book 전용 단말기가 선보인 이래, Microsoft와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와 대형 오프라인 출판사, 그리고 대형 온라인 서점이 주축이 되어 콘텐츠, 솔루션, 단말기 산업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가) 대형 출판사의 진출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유통부분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면서 경쟁압력을 받게 되었다.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e-book 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새로운 시장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기회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Time Warner는 iPublish.com 설립하여 온라인 출판사업을 전개하고 AOL과

66) 종이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천권의 1쇄 인쇄를 한번에 찍는 방식이 아니라, 원본은 디지털로 저장한 뒤, 주문이 있을 때마다 몇권씩이라도 인쇄하는 Print on Demand 방식이 보편화 될 것이다. 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2005년에는 전체 출판시장의 약 8%가 Print on Demand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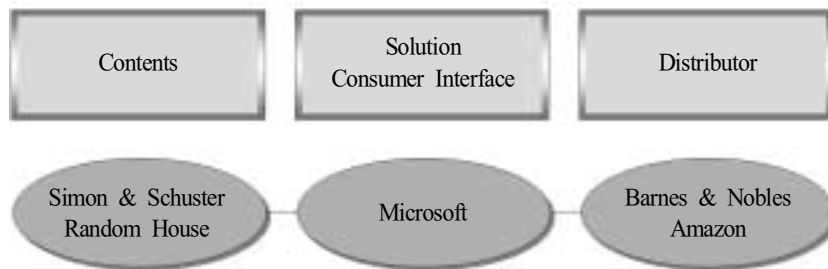
함께 자사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Write.com을 설립하여 무명, 신진 작가의 온라인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Bertelsmann의 Random House도 2001년 1월 AtRandom을 설립하고 e-book 출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Viacom의 Simon & Schuster 역시 별도의 사업부서는 설치하지 않았지만 e-book 출판에 나서고 있다.

Barnes & Noble은 이미 e-book 유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데, 2001년 7월 현재 Barnesandnoble.com에서는 Microsoft의 Reder, Adobe의 Acobat, Gemster의 REB 등 세가지 포맷의 e-book 약 7,000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Barnes & Noble Digital이라는 새로운 전자책 사업 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인 전자출판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다. Barnes & Noble Digital은 현재 온라인 출판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일단 작가에게 작품이 판매되는 가격의 35%를 지불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온라인 출판사들의 평균 로열티에 비해 10%정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반즈 & 노블 디지털의 전자책 판매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출판사, 솔루션 및 단말기업체, 유통업체의 제휴

미국 e-book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대형 기업간의 활발한 제휴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icrosoft의 경우 콘텐츠 확보를 위해 Simon & Schuster, Random House 등의 대형 오프라인 출판사들과 제휴를 맺고 e-book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Microsoft는 e-book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 출판사들과의 제휴로 대량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온라인 e-book 출판사로서의 위치를 굳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e-book의 마케팅과 판매를 위해 Barnesandnobles.com 및 Amazon과 제휴를 맺었다.



[그림 3-31] e-book 서비스를 위한 제휴의 유형

다) 1차 콘텐츠 생산자인 작가들의 입지 확대

e-book retailer가 출간된 서적을 e-book으로 판매하려면 작가와 오프라인 출판사에 각각 인세와 판권비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종이책을 e-book으로 전환하려면 세 당사자간에 거래관계가 새로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들간의 금전적인 이해관계

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콘텐츠를 유통하는 신규 매체가 증가하면서 1차 콘텐츠 제작자인 작가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차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가들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2월 Random House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작가들의 책을 e-book으로 출판한 RosettaBook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Random House는 e-book도 book이기 때문에 자사와 작가가 맺은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1년 7월 재판부는 e-book은 기존의 서적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출판사들의 동의 없이도 저작자와의 계약만으로도 e-book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⁶⁷⁾. 이에 따라 작가와 서적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라 할지라도 새로 e-book을 출판할 때에는 새로운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작가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직접 e-book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⁶⁸⁾.

2) 단말기 부문

가) 현황 및 주요 업체 동향

현재 e-book을 볼 수 있는 휴대 단말기에는 e-book 전용단말기인 전자책과 PDA 및 HPC가 있다. 최초의 전자책은 1998년 10월 미국의 벤처기업인 Nuvomedia가 선보인 “RocketeBook”이다. 그 후 미국에서는 “Softbook”, “Millenium Reader”, “Everybook” 등의 e-book 전용 단말기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 전자책들은 4M~8M의 용량으로 화면상에 밑줄을 긋거나 여백에 글을 써넣을 수도 있으며 검색기능과 해당 페이지를 북마크하거나 글자를 확대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싼 가격과 낮은 해상도, 그리고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 후반부터 e-boo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e-book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시장에서도 전자책 보급대수는 약 5만대로 저조한 실정이다⁶⁹⁾.

대표적인 e-book 단말기 업체인 Nuvomedia와 Softbook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0년 1월 인터넷위성방송업체인 Gemster에 인수되었다. 이후 Thomson Multimedia의 자회사인 RCA가 Gemster로부터 e-book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2000년 10월 REB1100과 REB1200을 출시하였다. REB 시리즈는 내장 모뎀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e-book 카달로그를 전송해주고 사용자가 구입하여 Personal online eBook Shelf에 저장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통을 위해서는 Barnes and

67) The New York Times(2001. 7. 11)

68) 아직 국내에서는 개별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e-book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미국에서는 스티븐 킹이 신작 “The Plant”에 대해 직접 판매 방식을 시도하였다.

69) Washington Post(2001. 7. 4)

Nobel와 Powells와 제휴하고, Simon & Schuster, Random House, Warner Books, McGraw Hill, Penguin Putnam 등 대형 출판사로부터 라이선스 받은 책과 Time, Newsweek, Fortune 등 잡지 및 The New York Times, Wall Street Times 등 신문을 전자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Gemster의 전용 단말기는 Microsoft의 Reader를 탑재한 포켓PC, PalmPilot의 Palm PDA나, 곧 출시될 Franklin Electronics의 eBook-Man과 같은 PDA 겸용 복합단말기와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5〉 세계 주요 전자책 사양

모델명	Rocket eBook	Softbook Reader	REB 1100	REB 1200	eBookMan
제작사	Nubomedia (Gemstar)	Softbook (Gemstar)	Gemstar, RCA	Gemstar, RCA	Franklin Electronics Publishers
무게(g)	627	1,300	약 482	약 936	184
디스플레이	3.5" × 5.5", Mono	6" × 8" Gray	4.75" × 3", 모노	480 × 640 화소, 칼라	240 × 200 화소, Gray
메모리(MB)	4	8	8	8	8~16
가격(달러)	199	600	299	600~700	129.95~229.95
배터리 지속시간(시간)	40	2~5	15~35	6~12	-
다운로드 방식	PC 접속	내장모뎀	내장모뎀 PC 접속	내장모뎀 PC 접속	PC 접속
뷰어	전용뷰어	전용뷰어	전용뷰어 (Gemstar eBook)	전용뷰어 (Gemstar eBook)	MS Reader, Franklin Reader
기타	전용단말기	전용단말기	전용단말기	전용단말기	PDA, MP3 등의 기능을 지닌 복합단말기 2001년 하반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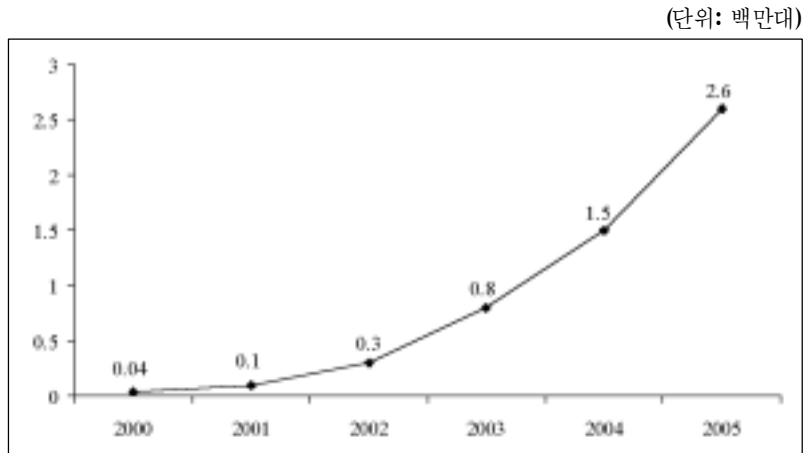
자료: 각사 홈페이지

나) 전자책 전망

전자책 시장은 해상도 및 가독성이 종이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쉽게 오고, 구매가능한 책이 한정되어 있으며, 표준화의 미흡, 공유, 인쇄,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Microsoft나 Adobe 등이 PC나 PDA 등 범용단말기를 통해서 eBook을 볼 수 있는 무료 리더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의 기능만으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orrester Research에 의하면 2005년 PC는 약 1억대, PDA는 천만대가 보급되어 있는 반면, 전자책의 보급대수는 260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책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좋게 하는 해상도가 뛰어나야 한다. 인쇄물의 해상도는 500~600dpi 인데 비해 현재 출시된 전자책의 해상도는 72~105dpi에 불과하다. 최근 Microsoft와 도시바가 공동개발 중에 있는 e-book은 7.7인치 TFTLCD, 640 × 960화소, 150dpi 해상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Franklin Electronics Publishers의 경우에도 eBookMan 출시를 앞두고 e-book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AlexLit, Mobi-Pocket.com, St.Martin's Press Prepare, The Wall Street Journal Online, Reciprocal 등과 제휴하여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 여름까지는 약 3,000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⁷⁰⁾.



자료: Forrester Research(2000. 12)

[그림 3- 32] 세계 전자책 보급대수 전망

3) 뷰어 및 솔루션부문

e-book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뷰어(Viewer)와 저작권관리 등 관련 솔루션시장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뷰어부문에서는 “클리어타입(ClearType)” 기술을 이용한 Microsoft의 “Reader”와 이에 맞서 “쿨타입(CoolType)” 기술을 이용한 Adobe사의 “Acrobat ebook Reader”가 경쟁하고 있다. 클리어타입과 쿨타입은 모두 인쇄물과 동일한 해상도를 지원함으로써 종이책을 보는 것이나 e-book을 보는 것이나 차이가 없게 만드는 폰트 렌더링 기술이다.

70) Wired News(2001. 7. 3)

Adobe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1억 5,000만명이 사용하는 Acrobat Reader를 통해 e-book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끼쳐왔다. Adobe는 e-book 사용자에게는 Acrobat eBook Reader 2.2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제작자에게는 e-book 제작을 위한 저작도구인 AdobeR AcrobatR 5.0 Software와 저작권보호 솔루션 “Merchant”,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서버를 판매하고 있다. Adobe의 e-book 뷰어는 전용단말기와는 달리 사용자에게는 무료이고, 우수한 압축 기능으로 콘텐츠를 작은 사이즈의 파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인쇄물에 근접한 높은 해상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팜 파일럿과 노트북, PC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운용되며, 더욱이 Windows, MacOS, Unix, Linux등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dobe는 뷰어 개발을 위해 2000년 8월 ‘Glassbook Reader’를 보유하고 있는 Glassbook을 인수하였고, PDA 단말기업체인 PlamPilot와 제휴하여 Microsoft와 경쟁하고 있다. 또한 e-book 유통을 위해 Barnesandnoble.com 및 Amazon과 제휴하여 이들 사이트에서 Acrobat eBook Reader용 e-book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와 경쟁하는 Microsoft의 클리어타입은 LCD의 액정 화면에 나타나는 검은 색 문자의 모서리에 회색 점들을 붙여 문자의 선명도를 지금보다 3배나 높여주고, 부드러운 흑백 대비로 실제 인쇄물처럼 보이도록 해준다. Microsoft는 이를 이용한 e-book을 자사 MS Reader에 기본 제공한다. Reader는 윈도 PC는 물론이고, 윈도 CE Handheld PC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MS의 리더는 Acrobat eBook Reader가 정당하게 구매한 e-book이라면 출력 기능을 지원하는 데 비해서 출력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Microsoft가 출력 기능을 뺀 이유는 e-Book의 저작권 보호 때문이다. 구매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다음 버전에서는 출력기능을 약속하고 있다.

Microsoft는 윈도우즈 OS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e-book 뷰어 및 솔루션시장에서도 Adobe를 위협하면서 e-Book시장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BarnesandNoble.com 및 Amazon과 제휴하여 2001년부터 초반부터 본격적인 e-book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e-book의 성공을 위해 저항감을 주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높은 해상도의 개발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맷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내 전자출판 솔루션만 해도 2,000종 이상이므로 e-book의 표준포맷에 합의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및 전송방식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Microsoft를 비롯한 e-book 시장의 여러 참여자들이 모여 “Open E-book Forum”을 결성하여 e-book의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 후인 1999년 10월, XML이 표준포맷으로 채택되었다.

3. 국내시장 동향

3.1 시장 현황

국내에서 e-book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부터로서 200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내 e-book 서비스는 전용단말기의 보급이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PC에서 다운받아 읽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국내 e-book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장규모를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본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스스로를 e-Book관련 업체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약 86개이고⁷¹⁾,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 매출은 7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업체당 평균 8천2백만원으로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업 중에는 e-book 서비스 외에 온라인교육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순수 e-book 업체의 매출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⁷²⁾.

〈표 3-16〉 국내 e-book 업체의 현황(2000년 현재)

업 체 수	86개
온라인 콘텐츠 매출	70억원
1업체당 평균 온라인 매출	8천 2백만원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표 3-17〉 국내 e-book 업체의 회원현황

전체 회원수 (N = 13)	5천명 이하	5천~5만명	5만~20만명	20만~50만명	50만명 이상
	30.8%	15.4%	15.4%	30.8%	7.7%
유료 회원수 (N = 13)	1천명 이하	1천~5천명	5천~2만명	2만~10만명	10만명 이상
	50%	25%	25%	-	-
월평균 유료거래 (N = 6)	100회 이하	500회 이하	2000회 이하	1만회 이하	1만회 초과
	50%	16.7%	16.7%	16.7%	-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71) e-book 관련업체에는 온라인 서비스업체, 솔루션업체, e-book 단말기업체와 e-book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출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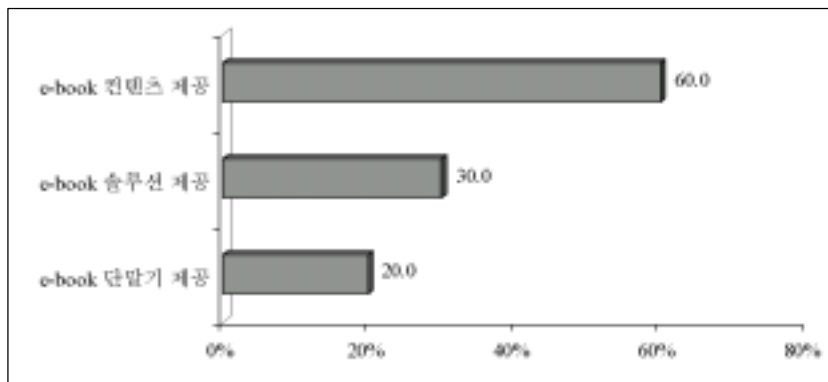
72) 와이즈북, 바로북닷컴, 북토피아, 에버북닷컴, 하이북 등 주요 e-book 업체의 2000년 매출은 모두 16.8억원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전자신문, 2001. 2. 1)

국내 e-book 업체의 영세성은 e-book 사이트의 회원수와 유료회원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회원수가 5천명 이하인 업체가 30.8%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 디지털콘텐츠 업체중 회원수가 5천명 이하인 업체 비중이 21.5%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유료회원수 역시 절반이 1천명 이하라고 응답했고, 월평균 유료거래 회수도 10회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⁷³⁾.

3.2 업체 현황 및 서비스 제공 현황

1) e-book 업체들의 형태

2000년 말 현재 국내 e-book산업은 e-book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형태별 분석에서는 e-book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콘텐츠 중심의 단일 사업을 전개하는 반면, e-book 솔루션 또는 e-book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는 양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n = 20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그림 3- 33] e-book 산업의 형태 - 중복응답

2) 사업 출발형태

국내 e-book 업체의 출발형태를 살펴보면, e-book 업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 중 e-book 콘텐츠서비스 업체는 순수온라인 기업이 판권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오프라인 출판사에서 출발한 업체가 같은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다. e-book 단말기공급업체는 기존 e-book 솔루션 공급 및 e-book 전용단말기 공급업체에서 출발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3) 월평균 유료거래 회수의 경우 응답자수가 매우 적는데, 솔루션업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서비스 업체인 경우에는 무응답의 대부분은 유료거래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8〉 산업분류별 사업의 출발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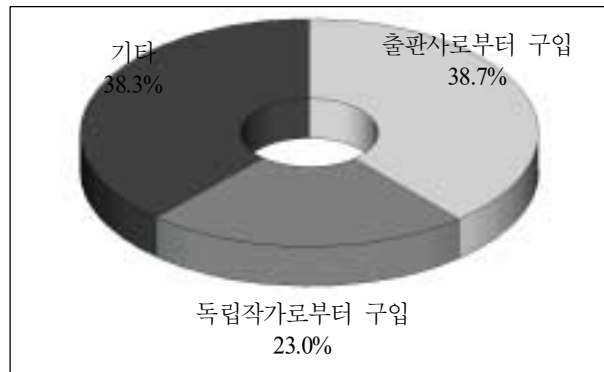
사업의 출발 형태	e-book 콘텐츠서비스	e-book 단말기공급	솔루션제공
순수온라인기업 → 관련계약	33.3	-	-
순수온라인기업 → 출판사와 제휴	16.7	-	33.3
오프라인 단일출판사	33.3	-	16.7
오프라인 출판사간 제휴	8.3	25.0	16.7
e-book 솔루션 공급업체	-	25.0	33.3
e-book 전용단말기업체	-	25.0	-
기 타	8.3	2.50	-
전 체	100.0	100.0	100.0

주: n = 20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3) 콘텐츠 확보방법

e-book 업체의 콘텐츠 확보방법은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38.7%로 다소 우세한 편이나, 독립된 작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비중도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확보방법으로는 직접 제작 및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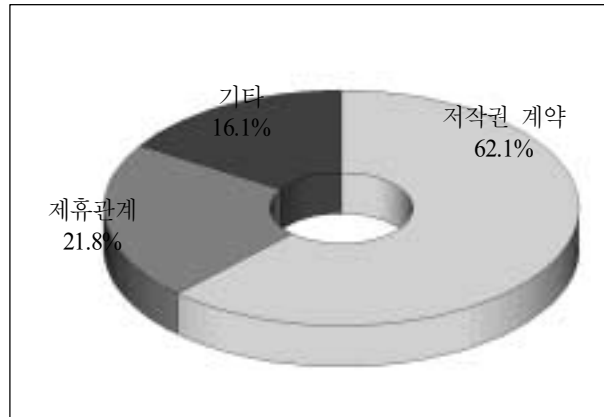
주: =15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그림 3-34] e-book 업체의 콘텐츠 확보 방법, 평균값 비교

4) e-book 제작 시 출판사와의 계약형태

이미 출판된 책을 e-book으로 제작하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콘텐츠를 확보할 때 계약 형태는 저작권계약이 62%로 주를 이루고 있고, 제휴관계에 의한 콘텐츠 확보는 21.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 n = 14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12)

[그림 3- 35] 오프라인 기출판물 e-book 제작시 계약형태

5) 인세 및 저작권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e-book retailer들이 지불하고 있는 인세 및 저작권료는 판매가 대비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현재 지불하고 있는 금액으로는 작가들에게는 e-book 판매가의 10~50%인데, 특히 지명도가 있는 작가인 경우에는 판매액의 50%를 선인세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⁷⁴. 출판사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판매가의 20~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book retailer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세 및 저작권료는 20~30%가 적당하다고 조사되었다. 즉, 현재 e-book 판매가가 종이책의 절반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20%의 e-book 인세는 작가에게 종이책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향후 e-book 시장의 판도가 우수한 콘텐츠의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온라인 출판사와 작가들과의 수익배분을 위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주요 업체 동향

1) 콘텐츠부문

e-book을 서비스하는 온라인출판사의 주요 참가자는 작가와 온라인 출판사,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이다. 국내 주요 온라인출판사들은 IT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솔루션 개발을 통해 e-book 시장에 진출한 순수 온라인기업이 출판사와 제휴하거나 판권계약을 통해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 출판사들이 e-book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e-book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출판

74) 현재 종이책에 대한 인세는 10%이다.

〈표 3-19〉 주요 e-book 서비스업체 현황

업 체	사업형태	사업분야	사용 뷰어 및 DRM	컨텐츠 수	특기사항
북토피아 (booktopia.com)	- 1995. 5. 한국출판 인회의(107개 출판 사)가 컨소시엄 형 태로 설립	- e-book 서비스 - 서적 전자상거래 - 서적 관련 정보제 공(웹진운영)	- 한국전자북의 Hiebook Reader - Acrobat Reader	3,500편 (8,000편)	- 2000년 9월 전자책 유료 서비스 시작 - 한국문서관 운영(무료) - 모바일 e-book 사업(011 n-top)
바로북닷컴 (barobook.com)	- 1997. 3. 초록배카 톤즈주식회사로 출 발 - 현재 약 53개 출판 사와 제휴	- e-book 서비스 - e-book 뷰어 및 솔 루션 개발, 판매	- 자체 개발한 바로 북99, Hiebook Reader for Barobook - 바로북 for CEPDA (용) - Acrobat Reader	5,400편 (20,000편)	- XML에 기반하고 DRM을 적용한 Hiebook Rea- der를 한국전자북과 공 동 개발 - 퍼피레스와 콘텐츠 교환으 로 일본어 전자책서비스 - 무협소설 전문사이트 (promurim.com) - 추리소설 전문사이트 (mysteryhouse.co.kr)
와이즈북 (wisebook.com)	- 1999. 3 ㈜이오커뮤 니케이션으로 출발 - 2000. 9 이오/와이 즈북 합병 ㈜와이 즈북 출범 - 현재 약 120여개 출 판사와 제휴	- e-book 서비스 - e-book 뷰어 및 솔 루션 개발, 판매 - POD(Publish on De- mand) 서비스 - 전자 도서관 구축 솔루션 개발	- 자체 개발한 Wise Reader - Acrobat Reader - Micromedia의 Flash Player	1,000편 (20,000편)	- Multimedia/Interactive e- book 제작(어학, 동화 등) - 일부분만 구입하는 분할 판매 도입 - 미국 NetLibrary와 e북 콘 텐츠 확충과 솔루션 개발 을 위한 업무 제휴 체결
한국전자북 (hiebook.com)	1999. 10 한국전자북 설립	- e-book 전용단말기 개발 - e-book 뷰어 및 솔 루션 개발, 판매 - e-book 서비스	Hiebook Reader	380편 (4,000편)	- XML에 기반하고 DRM 을 적용한 Hiebook Reader를 바로북닷컴과 공동 개발 - 전자책 하이북 개발, 2001년 8월 출시 예정
에버북닷컴 (everbook.com)	2000. 3. 출판사(중앙 M&B, 민음사, 청림, 까치)와 해외도서작 권 에이전시, 인터넷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출발	- e-book 서비스	- Adobe의 Acrobat eBook Reader - Adobe eBook con- tents Server 구축	100편 (5,000편)	- 유명작가(이문열, 이영 도 등)의 e-book전용 도 서 판매
Yes24 (yes24.com)	인터넷서점 에스24의 사업부문으로 출발하 여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직접출판이 주류 를 이룸	- 서적 전자상거래 - e-book 서비스 - 종이서적 출판예정	- 한국전자북의 Hiebook Reader - 파수닷컴의 DRM Enabler	약 50편 (800편)	- 유명작가(구효서, 이순 원 등)의 e-book 전용 도 서 판매 - 디지털문학상제정

주: 컨텐츠 수는 2000년 말 현재, ()는 2001년 계획(전자신문 2001. 2. 1 인용)

자료: 각사 홈페이지

사의 영세성으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e-book** 서비스에 진출하는 오프라인 출판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상호 위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e-book**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데, 대표적인 업체로는 북토피아가 있다.

순수 온라인출판사의 경우 작가 및 오프라인 출판사 등과의 협상이 쉽지 않고, 아직 **e-book**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인세와 판권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존 콘텐츠의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만 출간될 **e-book**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e-book**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화하여 멀티미디어 기능을 첨부한 외국어 수험서 및 동화책이나, 만화, 무협지, 추리물 등 대중적인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e-book**을 출판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e-book retailer**로는 북토피아, 바로북닷컴, 와이즈북닷컴, 에버북닷컴, YES24 등이 있다. **e-book**의 가격은 보통 종이책의 40~50%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디지털의 특성을 살려 책의 일부분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판매 방식도 등장하였다.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전용 뷰어(**viewer**)를 다운 받아 PC 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바로북닷컴이나 와이즈북닷컴은 자체에서 개발한 뷰어를 통해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한 솔루션은 다른 사이트에도 판매하고 있다. 북토피아와 Yes24는 한국전자북의 **Hiebook Reder**를 사용하고 있고, 에버북닷컴은 **Acrobat dBook Reader**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e-book** 업계는 PC에서 텍스트를 다운받아 읽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서비스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⁷⁵⁾.

2) 솔루션 부문

e-book의 출판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e-book** 시장에만 국한되는 솔루션은 종이책으로 작성된 문서를 디지털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는 **e-book** 변환기, 전환된 문서를 다양하게 편집해 주는 **e-book** 편집기, 그리고 **e-book**의 구매자들에게 콘텐츠를 보여주는 **e-book** 뷰어로 나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보안 기능이 추가되는데 솔루션 자체가 보안기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보안 솔루션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book** 관련 솔루션은 통상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 된다.

국내의 **e-book** 솔루션 업체들은 IT기반의 기업들이 **e-book** 관련 솔루션 업체로 진출한 경우⁷⁶⁾, **e-book**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온라인 출판사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위해서

75) 무선인터넷 **e-book** 서비스에는 LG텔레콤의 'M-북'서비스, SK텔레콤의 'n. 탑 전자북'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분당 200~5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지만 정보이용료와 통화료를 합쳐도 종이책 값의 50~60% 수준이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하루 600~1,000여건의 사용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디지털타임즈, 2001. 4. 19)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한 후, 솔루션 업체로 확장한 경우⁷⁷⁾, 그리고 e-book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자신의 단말기에 사용할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나뉜다⁷⁸⁾. 이와 함께 한국어도비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의 주요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e-book 솔루션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XML(eXtend Markup Language), PDF(Portable Document Format), HTML 등 다양한 문서포맷이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XML이 서서히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자책 콘텐츠 제작은 물론 암호화, 과금, e-book 쇼핑몰구축, POD(Print on Demand) 시스템⁷⁹⁾ 구축 등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표 3-20〉 주요 e-book 솔루션업체 현황

업체명	솔루션명	사용포맷	사용기반	특 징
한국전자북	Xbuilder	XML, HTML, OEB	데스크탑 전자책	- XML 전환기와 편집기, 뷰어제공
바로북닷컴	- 자체 개발한 바로북99 - 바로북 for CE (PDA용) - Xbuilder	XML, HTML	데스크탑 PDA 모바일폰	- 전자책 판매시스템 솔루션 제작, 공급 - 일반 PC는 물론 PDA, 모바일 폰 등을 지원하는 모듈 개발
와이즈북	- Wise Reader	XML, PDF	데스크탑 PDA	- 사용자 인증, 암호화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 독자 개발 - 멀티미디어 지원
이키온	- eBookgate - eStudio - eVision	XML	데스크탑 전자책	- e-book 전자상거래 판매시스템 솔루션 - XML 전환기와 편집기, 뷰어제공 - 암호화에 기반한 불법복제 security 솔루션
A4미디어	DigiPaper2000	XML, PDF	데스크탑	전자책 솔루션 및 POD System 개발 중
e북솔루션즈	참북	XML		- XML 전환기와 편집기, 뷰어제공 - 전자책 판매시스템 솔루션 개발 중

자료: 각사 홈페이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일포맷의 표준 설정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이다. 파일포맷은 향후 e-book 시장의 발전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

76) 이북솔루션즈와 A4Media가 그러한 경우이다.

77) 바로북닷컴과 와이즈북닷컴 등이 예이다.

78) e-book 전용 단말기 제조업체인 이키온과 한국전자북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79) 사용자의 주문형 서적을 원하는 형태로 프린트, 제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이다. **e-book** 단말기나 콘텐츠가 저마다 다른 표준을 택하고 있다면, 각 온라인 출판사의 **e-book** 콘텐츠를 읽기 위해 구매자는 각기 다른 뷰어를 다운 받아야 하고, 각기 다른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국제적인 **e-book**의 표준 포맷은 MS가 채택한 XML 방식과 미 Adobe사의 PDF가 경합 중인 가운데, 미국의 **Open e-book(OEB)** 표준안은 XML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뚜렷한 표준화 기준이 없는 가운데 XML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책컨소시엄은 전자책의 문서 표준안인 ‘**EBKS 1.0**’을 확정하고 2001년 6월 발표하였다. 이로써 출판사와 서비스업체간의 콘텐츠 교환과 재사용은 물론, 전자책 업체간 공동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용자 측면에서는 출판사나 서비스 업체별 표준과 상관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문서전환 소프트웨어(뷰어)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현재의 불편함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체마다의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로 인해 단일 뷰어개발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e-book**의 유통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막고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시켜 콘텐츠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파수닷컴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오딧세이닷컴에 자사의 DRM 솔루션인 ‘파수(fasoo) DRM’을 제공했으며, 트러스트테크, 놀로지, 드림인테크, 메타라이즈 등도 진출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 단말기 부문

현재까지 국내의 **e-book**의 콘텐츠는 PC를 통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나 향후의 **e-book**은 책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PDA나 **e-book** 전용 단말기에서 디스플레이 될 전망이다. 높은 해상도와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e-book** 전용 단말기 시장의 출현에 대해 **e-book** 시장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book 전용 단말기는 PDA를 연상시키는 간단한 정보단말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과 간단한 조작 버튼, 콘텐츠 송수신을 위한 통신장치, 간단한 입력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e-book** 전용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으나, 많은 업체들이 단말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1년 3/4분기 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있다. 국내 전자책은 개인정보관리와 MP3 기능을 갖춘 복합단말기⁸⁰⁾와 전자책 기능을 갖춘 PDA로 나뉜다. 단말기 가격은 30만원~40만원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단말기는 현재까지 낮은 해상도와 높은 가격으로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80) 한국전자책의 “Hiebook”, 에이원프로의 “에이원프로eBook”이 8월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아이맥스는 미국 프랭클린사의 ‘이북맨(eBookMan)’과 RCA의 EBM-900, EBM-910을 수입할 예정이다.

정도의 편리함을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콘텐츠도 아직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아직 표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각 단말기마다 사용하는 표준도 제각각이다. 향후 **e-book** 시장의 성장에 있어 단말기의 성능과 보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단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4. 향후 전망

국내의 **e-book** 시장은 시장형성이 미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적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e-book** 판매를 시작한 온라인 출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인터넷서점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오프라인 출판사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콘텐츠 부문의 경우 향후 **e-book** 전용 단말기의 보급과 그에 따른 **e-book**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성공이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에 놓여 있는 만큼 작가와의 인세 문제는 한동안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온라인 작가의 출현과 함께 위협받는 오프라인 출판사의 향후 움직임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솔루션 시장의 경우도 현재 전용 단말기의 보급이 본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표준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솔루션 업체들이 등장했으나 향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 업체들만이 향상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시장에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시장은 솔루션의 기술진전에 따라 전용 단말기 시장보다는 MP3플레이어 및 컴퓨팅 기능을 보유한 복합 단말기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MP3 등 여타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산업의 성장과 IMT-2000의 도입에 따른 무선인터넷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복합 단말기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e-book** 시장은 **e-book** 콘텐츠의 종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용자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용 단말기의 성능도 아직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현정, 『**e-Book**』, 『정보통신산업동향-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9.

- 김현정, 「스티븐킹의 실험적 e-book 판매」, 『KISD IT FOCU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9.
- 이인찬·권남훈 외, 「정보통신기술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0-17, 2000.
- 「새천년 가을은 e-book으로 시작된다」, 『HowPC』, 2000년 9월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콘텐츠 산업조사 연구사업」, 2000. 12.
- 「한·미 e-Book 시장의 현황과 미래」, 『Enable』, 2001년 1월호.
- “Books by the Byte,” *Washington post*, 2001. 7. 4
- “Digital Publishing: an Open E-Book,” *The Standard*, 2000. 8. 7.
- “E-Book Devices Yet to Hit Bestseller’s List,” *CNet*, 2001. 5. 2.
- “E-Book Forecast: Cloudy,” *Wired News*, 2001. 1. 11.
- “E-Books Remain Niche Reads,” *CNet*, 2001. 5. 3.
- “Judge Rules Random House can’t Stop Electronic Books,” *The New York Times*, 2001. 7. 11.
- IDC, “Digital Publishing Forecast and Analysis, 2000~ 2004: Digital Books and Print on Demand,” 2000.
- Forrester Research, “Books Unbound,” 2000. 12.
- “Franklin Has Some New E-Book Pals,” *Wired News*, 2001. 7. 3.